


안전,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조 풍 연 과 장

따사로운 겨울 햇살이 눈이 부시도록 맑은 오후, 달리는 차를 잠시 멈추고 차창을 열어 “수~읍”하고 심호흡을 해 본다. 마치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상쾌함이 가슴 깊이 밀려온다. 오늘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조풍연 과장을 만나 그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조풍연 과장은 1961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다. 기계공학도인 그가 처음 안전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86년,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을 당시로, 아무도 안전을 전담하려 하지 않아 자진하여 자격증도 따고 안전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부터였다. 대학시절, 안전과목은 그냥 하나의 암기과목에 불과했기 때문에 안전은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안전업무를 담당하며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의 부재로 인한 사고들을 지켜보며 안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 각종 교육과 세미나에 참석하여 안전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많은 안전관계자들의 경험을 간접경험으로 삼아 스스로 프로의식을 키워 나갔다. 1995년 이곳 한국타이어로 이직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그는 좀 더 깊은 지식을 쌓기 위해 4년간 환경공학을 다시 공부하였다. 그렇게 순조롭게 1년여가 지났을 1996년 10월 어느 날, 당시 직화식 소각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날따라 업무 보고가 있어 일찍 출근한 그에게 급히 걸려온 전화, 사고 소식이었다. 직화식 소각로의 막힌 노즐을 청소하기 위해 유해가스가 가득찬 세정탑 내부로 들어가 노즐을 분해하던 한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 검은 그을음을 뒤집어 쓴 근로자는 이미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숨이 멈춘 상태, 조풍연 과장은 급히 안전교육 때 배운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근로자가 다시 숨을 쉬게 되기까지의 2분여 간,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다행히 무사히 근로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게 되었다. 아직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아찔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뿌듯한 마음이 든다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그렇게 안전과 지내온 세월이 20여년, 이제 겨우 안전이란 일이 무엇인지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는 조풍연 과장, 안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이라 말한다. 연륜이 높아져도 경험이 쌓여도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 바로 안전은 생명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막 반환점을 돈 그의 인생여정, 100킬로 울트라 마라톤을 13시간33분에 완주한 열정과 패기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임재근 기자>